

고규홍의 '나무 생각'



나라꽃 무궁화 유감

무궁화꽃이 한창이다. 지글거리는 열천의 한반도 어디에서도 무궁화는 지칠 줄 모르고 끊임없이 피어난다. 유월 말쯤부터 피어난 무궁화꽃은 앞으로도 한 달 넘게 계속 피어 우리의 여름을 지켜 주리라. 우심한 더위에 지쳐 말라 가는 나무들이 적지 않지만, 무궁화는 최악의 무더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자태를 뽐낸다. 우리의 나라꽃 무궁화가 이 여름을 맞이하는 방식이 놀랍다.

나라마다 그 민족을 상징하는 꽃이 있다. 나라꽃, 민족을 상징하는 국화(國花)가 그것이다. 영국의 장미, 프랑스의 붓꽃, 독일의 수레국화 등이 그렇고, 미국이나 캐나다의 경우 주(州)마다 주화(州花)를 정하기도 한다. 법으로 지정하는 경우도 있고, 명문화한 법과 무관하게 한 나라의 상징이 되는 경우도 있다. 어떤 경우든 그 민족의 특징과 역사를 잘 드러내는 꽃이 국화로 선택된다.

가까운 일본을 상징하는 꽃나무는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벚나무다. 일본은 법에 의해 벚꽃을 국화로 정한 적이 없다. 오래전부터 왕실의 상징으로 벚꽃을 이용했기에 일본의 상징으로 여길 뿐이

다. 일본이 국가의 상징으로 여기는 벚나무는 벚나무 종류 가운데 왕벚나무다. 그런데 왕벚나무의 자생지가 일본에 없고, 우리나라의 남해안 일부 지역과 제주도에서 발견된다는 사정이 우리나라 사람들의 입길에 자주 오른다. 거기에는 일본 문화의 뿌리가 우리나라에 있음을 강조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을 것이다. 가끔은 우리 자연과 문화의 뿌리가 일본에 비해 빼어나고 깊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벚나무의 자생지를 거론하기도 한다.

바람 따라 혹은 물결 따라 새 숲의 터를 넓혀 가는 나무들에게는 사실 국경이 따로 있을 수 없다. 더 세심하게 짚어 보면 최초에 한 종류의 식물이 어느 지역에 서 가장 먼저 발견되었는가를 찾기는 무척 어려운 일이다. 식물의 역사가 사람의 역사를 훨씬 상회하기에 사람의 역사 이전의 사정을 정확히 밝히는 건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

이쯤에서 우리나라 꽃 무궁화에 대해서도 돌아보게 된다. 우리의 무궁화 역시 일본과 마찬가지로 법에 의해 나라꽃으로 지정된 적이 없다. 오랫동안 우리

나라에서 자라면서 민족의 상징으로 여가다가 자연스레 나라꽃으로 삼게 된 것이다. 일본의 경우와 다른 점이 있다면 일본의 벚나무가 왕실에 의해 이용됐다면, 무궁화는 이 땅의 민중 스스로가 나라의 상징으로 여겼다는 점이다.

왕벚나무의 고향을 이야기한 것처럼 무궁화의 고향도 돌아보아야 한다. 무궁화는 오래전부터 우리나라에서 우리와 더불어 살아온 나무임은 틀림없다. 이를테면 단군 시대부터 중국에서는 우리나라를 무궁화가 잘 자라는 지역이라 해서 무궁화를 뜻하는 '군(楸)'을 써서 근역(楸域)이라고 불렀다. 무궁화가 많은 곳이라는 뜻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지금은 우리나라에서 무궁화의 자생지를 찾을 수 없다. 결국 무궁화의 고향은 인도와 중국으로 한정할 수밖에 없다.

아쉬운 점은 또 있다. 여러 종류의 무궁화꽃 가운데 어떤 꽃이 국화인지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다. 현재 무궁화는 세계적으로 300종류가 넘는다. 같은 무궁화이지만, 모양과 빛깔이 천차만별이다. 보랏빛 꽃잎 가운데에 자주색 심이 박힌 무궁화가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종

류이지만, 흰색의 무궁화도 있고 가운데에 자주색 심이 박힌 것도, 박히지 않은 것도 있다. 그 가운데 어떤 것이 우리의 나라꽃이냐를 묻는다면 정확한 답변하기가 쉽지 않다. 나라꽃의 표준을 법으로 정한 적이 없는 까닭이다. 무궁화와 관련한 법으로는 고작 지난 2016년 12월에 개정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무궁화의 보급 및 관리'라는 제목이 추가된 항목이 전부다.

결국 일본인들이 좋아하는 왕벚나무에 비해 우리의 국화 무궁화에 대한 사정이 그리 나은 게 없다는 이야기다. 나라꽃으로서 무궁화를 제대로 대접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다. 굳이 따지고 든다면 국화의 규정 따위가 뭐 그리 중요하냐고 물을 수도 있다. 그러나 기왕에 오랫동안 나라꽃으로 여겨온 꽃이라면 전국민적인 합의를 얻어 내기 위해서라도 최소한 나라꽃의 표준이라도 정하기 위해 하루빨리 법적·제도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다. <나무 칼럼니스트>

※ 이 칼럼은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을 받았습니다.

의료칼럼



선효정 상무힐링재활요양병원장

잠 못 이루는 여름철 건강법

이다. 또한 중국의 계절을 기준으로 하였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조금 맞지 않는 경우도 있다. 다만 초복, 중복, 말복 등 삼복 날은 24절기에 포함되지 않으며 양력을 기준으로 12간지를 혼합하여 결정한다.

여름철이면 피로, 피로감, 무기력증, 식욕부진 등의 증상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다. 열대야가 계속되는 요즘 노약자, 어린이, 거동 불편자 등은 여름철 질환 예방에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한다. 여름철 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을 제안한다.

첫 번째, 무더운 여름철에는 땀을 많이 흘리기 때문에 충분한 수분을 보충해야 한다. 갈증을 느끼지 않도록 탄산음료나 주스 같은 당분이 많은 음료보다 물을 자주 마셔 일상병과 열사병을 예방해야 한다. 차가운 얼음물보다 미지근한 물이 효과적이라는 사실도 잊지 않아야 한다. 또한 과일 야채 등을 먹는 것이 좋은 방법이며, 비타민제를 복용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두 번째, 더위가 기승을 부릴수록 실내 적정 온도를 유지해 냉방병을 예방해야 한다. 냉방병은 실내와 실외의 온도차가 심해 발생하는 가벼운 감기와 비스

한 질환이다. 실내의 온도를 5-6도를 유지해 냉방병을 예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에어컨과 선풍기를 가동하기 전에 반드시 필터와 날개를 깨끗이 청소해 미세 먼지와 세균으로부터 감염을 예방해야 한다.

세 번째, 평소에도 중요하지만 고온다습한 여름철에는 특히 손 씻기가 중요하다. 여름철 질환의 최고의 예방법은 다름 아닌 손을 깨끗이 씻는 것이다. 손 씻기는 여름철뿐만 아니라 건강 관리를 위한 기본 습관이다. 물놀이를 많이 하여 눈병 환자가 급증하지만 손 씻기만 잘해도 눈병 질환은 대부분 예방할 수 있다.

네 번째, 무더위와 높은 습도로 음식물이 부패하기 쉬운 여름철의 대표적 질병이 식중독이다. 조리하기 전에 먼저 손 씻기를 하고 칼이나 도마는 욕류, 어류, 채소류 등으로 구분해 사용해야 한다.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음식은 반드시 익혀서 먹고 날 음식을 피하는 것이 중요하다. 냉장고는 안전한 곳이 아니다. 냉장고에 보관한 음식은 반드시 가열한 후에 섭취해야 한다.

다섯 번째, 여름철 뜨거운 햇빛과 강한 자외선을 피해야 한다. 자외선은 피부노

화, 탈모, 화상은 물론 아토피를 악화시키고 알레르기까지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햇빛을 피하는 것이 좋다. 외출할 경우에는 반드시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모자, 선글라스, 양산 등으로 자외선을 피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폭염주의보나 경보가 발생하면 외출과 야외 활동을 자제하는 것이 좋다. 하지만 무엇보다 여름철 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휴식과 숙면을 취하는 것이다. 그리고 여름철에는 계곡과 바다를 찾는 장거리 여행이 많아진다. 오랜 시간 운전을 하거나 장시간 앉아만 있으면 척추와 관절에 무리가 많이 간다. 50분 정도 운전하고 10분 정도 휴식을 취하면서 스트레칭을 하는 것이 좋다.

'삼복더위에겐 소불도 꼬부라든다'는 속담이 생각날 정도로 폭염이 계속되고 있다. 하지만 이열치열(以熱治熱)이라고 열에는 열로 상대한다는 선조들의 지혜처럼 시원한 계곡이나 바다에서 건강을 보충하는 보양식을 먹으면서 북풍한설 떨어지는 겨울을 상상하는 것도 무더위를 극복하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일 것이다.

기고



이부님 장흥군 장흥읍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준 환갑 선물

신 없이, 날 돌아볼 틈도 없이 살림 불리는 재미로 정말 열심히 살아왔다.

1남 5녀를 가르치며 아내로서 엄마로서 며느리로서 최선을 다하고 앞만 보며 살다 보니 어느덧 내 인생이 노년기를 바라보고 있었다. 보람도 있었지만 앓았던 나이를 잊고 살았기에 마음에 서글픈 마음도 있었다. 그때는 갱년기라는 단어도 모르고 지나가는 시절이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아마도 그때가 갱년기였으리라 짐작해 본다. 나는 점점 늙어감을 느끼고 공허함도 있었지만 잘 성장한 아이들과 남편의 성공이 나의 보람이었고 자랑이었고 기쁨이 되어 주었다.

이제는 1남 5녀가 모두 다복한 가정을 꾸리고 각자의 생활에 최선을 다해 열심히 잘 살고 있고 우리 부부 이 나이에도 건강하여 가족들과 1년에 한 번씩 외국 여행까지 가는 호사를 누리는 세상에 살다 보니 내 생애에 가장 행복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한다.

요즈음 주위에서 친손이네 산수연이 네 하는 데 시어머니인 나도 4년 전 남편과 같이 산수연을 보내고 이제 미수잔치를 눈앞에 두고 있다.

그런데 내년이면 며느리가 환갑을 맞이하게 된다. 시집 온 지 30여 년이 지나 친정에서 보낸 시간보다 나와 보낸 시간이 더 많은 며느리는 그 세월이 지나는 동안 아내로서, 며느리로서, 엄마로서 나와 같은 삶을 살아왔다.

손녀는 서울대학교 대학원에 재학 중이어서 곧 박사 학위를 취득할 예정이고 손자는 건축학과를 졸업하고 서울에서 건축 회사에 근무하면서 바쁜 나날을 보내고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 남편이 서울에서 산부인과 전국회장의 책임을 맡고 있으면서 병원 생활에 전력을 쏟고 있어 자녀들 교육과 남편 내조에 정진없이 허덕이는 것을 시어머니인 나로서는 늘 보듯 지켜보았다.

하루하루 빠르게 흘러가는 서울에서의 고된 생활을 이겨내고 이제 환갑을 맞이하는 며느리에게 내 마음을 전하고파 환갑 여행을 시어머니인 내가 보내주고 싶어 그동안 한 푼 두 푼 모은 여행 경비 500만 원을 보내주었다.

그동안 가족들을 돌보고 우리 내외끼기 지 신경 쓰면서 행복한 일도 많았지만 뜻하지 않은 어려움도 있었는데 그것들을

슬기롭게 이겨내느라 고생이 많았으므로 며느리의 노고에 보답하는 의미에서 이제는 한 숨 돌리고 편히 환갑 여행이나 다녀올 수 있도록 준비하였다.

며느리는 아직 내가 걸어온 길을 봐도 지않았지만 난 며느리가 걸어 온 길과 앞으로 걸어갈 길을 먼저 경험한 인생 선배이기에 지금의 며느리 마음을 알 수도 있을 것 같아 마음의 선물을 하고 싶었다.

나 또한 남편이 로타리 회원으로 40여 년간 봉사 활동을 하면서 장흥에서 법무사로 재직 중인데, 나 역시 남편의 내조와 1남 5녀의 자녀 뒷바라지에 그동안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았으나 이제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어 지나온 추억의 앨범을 들춰보고 화살보다 빨리 지나가는 세월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다.

그 세월 동안 함께 지내오면서 이제는 며느리가 아닌 딸과 다를 바가 없이 느껴진다. 시어머니인 내가 며느리 환갑 여행을 다녀오도록 마음 먹었던 그 사랑이 내 인생의 즐거움이 아닌가 싶다.

물질로 물려주는 유산보다 내 사랑이 담긴 귀한 마음의 유산을 며느리에게 남겨주고 싶은 시어머니의 작은 소망이기도 하다.

社說

국가사무 이양 좋지만 재정 지원도 함께

정부가 500여 개 국가 사무를 지방에 이양하기로 하면서 실질적인 지방 분권에 시동을 걸었다. 하지만 중앙 정부의 사무만 지방에 넘기는 것은 한계가 있는 만큼 재정 지원과 인력 충원을 병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최근 19개 중앙 부처 소관 518개 국가 사무를 지방에 이양하기 위해 관계 법률을 일괄 개정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안을 마련했다. 이 법은 과거 지방 이양이 의결됐지만 장기간 실행되지 못한 '광주·전남 읍성의 현황과 활용 방안'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김 위원은 "문화재 지정 여부에 따라 읍성의 보존 상태가 차이가 있다"면서 "읍성의 관광 콘텐츠화를 위해선 다양한 방식의 활용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 위원은 또 광주·전남에 소재한 전통 읍성 15곳을 문화재의 지정 여부와 현재의 보존 상태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시·도지정문화재, 시·도지사가 지정한 문화재자료, 성벽을 일부 보존·복원해 놓은 읍성, 흔적이 거의 없는 읍성 등 다섯 가지로 분류했다. 이에 따르면 낙안읍

성과 나주읍성은 국가지정문화재에, 고흥읍성(홍양현읍성)과 강진읍성은 시·도지정문화재(전라남도 기념물)에 해당된다.

읍성을 관광 콘텐츠로 활용하자는 김 위원의 제안은 광주 전남을 상징하는 문화 자산으로서 충분한 경쟁력이 있다고 본다. 이들 읍성은 500-600년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만큼 현재 남아 있는 성문과 성벽을 제대로 복원한다면 다른 지역에서 찾기 힘든 관광 자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올해는 전라도 정도 천년이 되는 뜻깊은 해다. 지역의 역사와 문화가 축적된 읍성은 그 자체가 독립적인 역사 공간이라는 점에서 관광객을 불러들일 수 있는 잠재력이 크다.

최근엔 도시재생 사업과 연계해 읍성을 복원하거나 이를 활용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문제는 지자체의 마인드다. 광주시와 전남도가 적극적인 관심으로 읍성 관광 자원화 계획을 수립했으면 한다.

'읍성을 관광 자원으로' 좋은 제안이다

광주·전남의 역사와 문화가 숨 쉬고 있는 15개의 읍성을 새로운 관광 콘텐츠로 활용하자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기초 조사 등을 통해 관광객의 수요가 예상되는 시설을 복원한다면 역사 도시로서의 이미지 제고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광주전남연구원의 김만호 연구위원은 "광진 리더스 인포"의 보고서 '광주·전남 읍성의 현황과 활용 방안'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김 위원은 "문화재 지정 여부에 따라 읍성의 보존 상태가 차이가 있다"면서 "읍성의 관광 콘텐츠화를 위해선 다양한 방식의 활용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 위원은 또 광주·전남에 소재한 전통 읍성 15곳을 문화재의 지정 여부와 현재의 보존 상태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시·도지정문화재, 시·도지사가 지정한 문화재자료, 성벽을 일부 보존·복원해 놓은 읍성, 흔적이 거의 없는 읍성 등 다섯 가지로 분류했다. 이에 따르면 낙안읍

성과 나주읍성은 국가지정문화재에, 고흥읍성(홍양현읍성)과 강진읍성은 시·도지정문화재(전라남도 기념물)에 해당된다.

읍성을 관광 콘텐츠로 활용하자는 김 위원의 제안은 광주 전남을 상징하는 문화 자산으로서 충분한 경쟁력이 있다고 본다. 이들 읍성은 500-600년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만큼 현재 남아 있는 성문과 성벽을 제대로 복원한다면 다른 지역에서 찾기 힘든 관광 자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올해는 전라도 정도 천년이 되는 뜻깊은 해다. 지역의 역사와 문화가 축적된 읍성은 그 자체가 독립적인 역사 공간이라는 점에서 관광객을 불러들일 수 있는 잠재력이 크다.

최근엔 도시재생 사업과 연계해 읍성을 복원하거나 이를 활용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문제는 지자체의 마인드다. 광주시와 전남도가 적극적인 관심으로 읍성 관광 자원화 계획을 수립했으면 한다.

無等鼓

많은 사람들이 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 사소한 다툼에도 법정에서 시비를 가리려 하는 것이다. '법대로 하자'라는 말은 이제 누구나 쉽게 내뱉는 말이 되어 버렸다. 2017년 대법원이 내놓은 사법연감에 따르면 2016년 법원에 접수된 소송 사건은 674만7513건으로, 2015년보다 6.06%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인구 1000명당 18명이 민사 분쟁, 5명이 형사 분쟁, 1명이 가사 분쟁을 겪고 있다는 의미다.

어떤 이는 상대방을 압박하거나 괴롭히려는 목적으로 소를 제기하고, 1심이 안 되면 2심

이나 3심까지라도 가서 어떻게든 승자와 패자를 가리려 한다. 법학전문대학원 학생협의회가 내놓은 자료에서는 2015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소송 건수는 같은 해 일본 소송 건수보다 5.8배나 많다고 적고 있다.

과거 법조 출신 기자로서, 재판정에 앉아 여러 판결을 듣고 있노라면 과연 판사가 공평무사하게 사건을, 피의자를, 피해자를 보고 있는 것인지 의구심이 들 때가 있었다. 그들도 한 사람의 인간이며, 혈연·학연·지연 등 관계망이 형성돼 있

고, 출세도 해야 하며, 퇴임한 뒤 변호사로 개업하면 돈도 벌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다. 공정하기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자기 절제를 신념으로 삼는 법조인은 분명 존재한다.

법원의 상징처럼 청사앞에 서 있는 정의의 여신은 오른손에 칼을, 왼손에 저울을 들고 있다. 두 눈은 천으로 가리고 있는데, 신마저도 눈을 가려야 '공평무사'할 수 있다는 의미인 듯하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벌어진 '사법농단'이 갈수록 점입가경인 가운데, 앞으로 제 도적인 대책을 고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그들의 노력을 폄하할 수는 없지만 공부만 잘하면 20대의 나이에 판검사의 지위를 누리고, 막대한 권력만큼 그들을 감시하는 눈은 허술하며, 전권에 우라는 관습이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 현재의 사법 시스템 전반을 이제는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한편으로 지나치게 법에 의존하고, 판결을 맹신하는 우리들의 자세도 조금씩 바뀌 나가야 할 것이다.

/윤현석 정치부 부장 chadol@

| | | | |
|--|------------------|---------------------------|----------------|
| 光州日報 | | The Kwangju Ilbo | |
|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金日燦 | | | |
|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제 1(일간) | |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 |
|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 | | |
| 편집국안내 | 대표 FAX 222-4918) | 경영지원국 | 220-0515 문화사업국 |
| 220-0649 | 220-0661 | (FAX 222-8005) | (FAX 222-0195) |
| 220-0632 | 220-0652 | 기획관리국 | 227-9600 |
| 220-0663 | 220-0692 | 예향부 | 220-0692 |
| 220-0664 | 220-0693 | 사회부 | 220-0664 |
| 220-0642 | 220-0697 | 체육부 | 220-0697 |
| | |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 |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 | |